

이문화 적응과정에서 보이는 동경거주 한국인 부모의 교육관에 관한 고찰

이호현*

요약

본고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문화간 이동을 통해 이문화 속에서 육아를 하는 부모에 관한 조사연구이다. 즉, 이문화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 분석을 통해 부모가 어떠한 경험과 사고를 통해서 교육관을 형성해 나가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동경에 살고 있는 한국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탐색형 집단면접에서 한국인 부모들은 자신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상, 즉 교육관과 일본사회에서의 현실적인 육아 사이에서 교육방법에 대한 불안과 갈등을 겪으며 교육관을 재정립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바람직한 육아상’의 요인을 부모의 생활공간과 시계열적 경험면에서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의 현상을 이해하는 틀로 한국사회의 지식중심의 조기교육에 대해 민감히 인식하고, 이문화 속에서의 현재 육아모습을 ‘바람직한 육아상에서 이탈한 부

* 와세다대학 교육종합학술원 비상근 강사, lewaseda@hotmail.com

정적인 상황'으로 해석하는 일면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 육아를 하기 전의 경험 중에 외국인으로 구별 지어지는 '소외감'은 자신을 주변인으로 정의내려 일본문화와의 직접적인 대결로부터 탈피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부모의 문화변용은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언어의 순위와 한국적인 정체성 육성 등 교육관의 재정립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한국인 부모는 이문화 환경에서 육아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마찰회피와 소외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한국인 공동체로의 주거이동과 부모의 일본어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다문화 교육을 지향하는 원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문화 간 이동 후에도 현재의 육아에 모국의 교육상황을 반영해가며 상호규정을 통해 이문화 환경에서의 육아를 둘러싼 부모의 문화변용과 함께 육아에 대한 교육관을 재정립 해나가는 모습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축적을 통해 다문화 공간에서의 육아에 대한 이해와 외국인 부모의 학습 및 문화변용에 관한 연구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리라 본다.

주제어: 이문화적응, 다문화교육, 다문화육아공간, 문화변용

I. 서론

일본사회는 1990년대 이후 많은 뉴커머(newcomer)들을 맞이함으로써 다국적·다문화·다민족화가 가속화하는 현실¹에 직면하게 된다. 지역사회에

1 2008년 12월시점 외국인등록자수; 약 221.7만 명, 총 인구의 1.74%(법무성 입국관리국, 2009) 일본 국내에서 다양한 루트를 가진 자녀들이 연간 3만 명 이상 출생(李節子, 2007: 48)

서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 부모자녀²는 언어·문화의 차이로 인해 공동체 community 속에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면서 그 사회일원으로 생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현실의 무게감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육아공간에서 외국인 부모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과 문화변용의 양상들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인간형성이 아주 복잡하고 종합적인 과정임을 입증하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다문화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 신주쿠新宿³는 일명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며 많은 뉴커머 한국인들이 거주하며 교육기관은 물론 일터·병원·종교시설 등 다양한 부분들에서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다.

일본사회의 다문화·다민족화에 관련된 새로운 과제에 대해 다양한 시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취학전 교육에 관한 것으로는 구체적인 관찰에 기초한 보육원 등 다문화 환경에서 아동들의 성장과정에 관한 것(佐藤千, 2004), 보육자의 시점에서 바라본 외국인 부모의 교육관이나 육아문화의 차이에 관한 조사, 육아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법에 관한 견해를 제공해준 것(大場幸夫 외, 1998; 日浦直美, 2002)이 대부분이다. 부모교육이 주목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문화 속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외국인 부모⁴가 제외되고 있다

2 이 논문에서 외국인 부모자녀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귀화자歸化者 또는 일본 국적이라도 한쪽 부모가 외국에 그 뿌리를 두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3 東京都新宿區の調査(2009)에서, 2008년 1월시점 외국인등록자가 3만 2천 명, 구내 총인구의 약 10.3%를 차지하며, 출신국으로 재일한국·조선인을 포함한 한국과 조선이 1위로 전체의 약 44.5%, 2위 중국, 3위 프랑스로 총 110여 개국의 출신자가 등록되어 있다.

4 본 연구조사에서는 부모가 육아에 관련된 직접적인 당사자였지만, 육아 당사자로는 육아를 돕기 위해 한국에서 오신 조부모나 그 외 친족, 육아 도우미, 양부모 등이 직접적으로 육아 당사자가 될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해둔다.

는 점이 주목된다.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은 부모의 주관이나 교육관이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이문화 속에서의 육아를 부모의 비형식적인 교육의 장으로 볼 때 자녀에 대한 교육관과 함께 육아를 통한 부모의 학습 및 교육관의 형성요인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근거로 본론에서는 다문화 육아공간에서 취학전 아동을 육아중인 한국인 부모의 교육관에 주목하여 실제 육아 경험담을 근거로 외국인 부모가 직면하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것은 문화간 이동 후에 육아를 하는 부모는 어떠한 경험과 사고에 영향을 받으며 교육관을 형성하는지 부모의 문화변용과정에 관하여 좀더 깊은 이해와 자녀교육에의 참가를 통한 부모의 학습에 관한 연구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2007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친 인터뷰 내용 분석을 근거로 논술해 나가고자 한다. 인터뷰는 탐색형 연구에 특성이 있다고 하는 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井下理 외 역, 1999))을 실시했고 그 연구 보고서를 피인터뷰자에게 환원함으로써 이차적인 추가조사(Follow-up)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했다.

대상자는 동경에 거주 중인 취학전 아동을 육아중인 한국인을 중심으로 (Snowball sampling) 결정했고, 인터뷰에 앞선 설문지로 기초데이터를 발취했다. 각 2시간에 걸친 인터뷰는 녹음 후 테입재생을 통해 문서화하고 3명의 공동연구자와 분석·데이터화 했다. 한국계 뉴커머 연구자의 참가로 조사자와 조사대상자 사이의 언어문화적인 선입견(Bias)을 최소화하여 간과해 버릴 수 있는 문화적 요인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전체적인 분석결과로 ‘일본과 한국의 원(園)의 교육방침의 차이에 대한 대응’과 ‘원측과 다른 부모와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등에 곤란을 표시했고, 자녀의 성장에 관련해서는 ‘일본어·일본문화의 습득’과 ‘한국인으

로서의 정체성(Identity)의 육성'에 많은 관심을 표했다. 부모들은 이문화 환경에서의 육아로 많은 당면과제에 직면하면서 자녀에게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훌륭한 한국인'이 되도록 '부모로서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해주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하며 현실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면접중 부모들은 육아 경험에 관해서 말할 때, 그들의 교육관에 관한 요소가 자신의 사고에 관련된 설명이나 행동의 배경으로서 제시되고 있었다. 그것은 많은 부모들이 '바람직한 육아상'과 '현실의 육아'와의 차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이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직한 육아상이 현실의 육아 경험에 의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양상을 부모의 교육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교육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그 형성과정과 이문화 적응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교육관에 관하여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II. '바람직한 육아상'과 '현실의 육아'의 상호규정을 통한 교육관의 양상

1. 한국사회의 교육적 요구가 반영된 교육관

오늘날 한국사회의 과잉된 조기교육(대부분 영어교육)에 의한 교육이민과 (이인철, 박민혁, 2006), 한국 내 교육에 대한 실망, 사교육비의 격차(오광철, 2007), 공교육 불신과 교육불평등의 고착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계층화의 진행(선우정, 2007) 등 한국의 사회 상황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의 교육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육아에 관련된 상담 상대로 한국에 계신 부모나 형제, 인터넷을 통한 한국정보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의 상황에 입각한 ‘바람직한 육아’와 ‘생활권인 일본에서 주류를 이루는 육아’의 차이는 취학전 교육에의 기초적인 사고에서 잘 나타난다. 일본인 부모와 보육자는 취학전 교육으로서 사회성 발달을 중심으로 한 학교 교육에의 접속을 중시하며, 집단 속에서의 자세·친구 만들기·규칙 지키기 등을 주된 교육으로 요구한다. 반면 한국인 부모는 취학전 교육을 교과중심의 초등학교 준비과정으로 보고 그에 대응하는 지식중심의 조기교육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ベネッセ教育研究開発センター, 2006: 74).

다음 사례에서 한국의 사회상황과 일본에서의 현재 육아와의 차이가 근간이 되는 불안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제가 자주 느끼는 것이지만 인터넷의 싸이월드에 들어가면 일본에 가면 한국 아이들은 바보가 된다고 적혀 있는 것을 읽고,...(중략)...역시 걱정이에요”⁵ “학원 레슨도 일본은 뭐든지 일주일애 한 번밖에 없고...(중략)...저희들은 한국에 돌아가는 것도 생각해 봐는데...(중략)...우리 애들이 한국의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너무 격차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에요”⁶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조기교육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모에게는 정신적 부담이 되며 ‘염려’라는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 즉, 변화해가는 한국사회의 교육요구needs에 대한 인식은 인터넷이나 한국에 계신 부모·친척과의 대화 속에서 항상 갱신되어지며, 현재 일본에서의 육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사회의 교육요구에 관한 인식을 기점으로 형성되어진 교육관은 일본에서의 ‘현실의 육아’ 상황을 ‘바람직한 모습으로부터 이탈한

5 B씨(2007년 7월 24일, 일본체제 6년, 여 4세, 남 2세) 유학생 부부로 동경에 정착. 남편이 하는 자영업을 본인도 도와줌. 두 자녀는 보육원.

6 A씨(2007년 7월 24일, 일본체제 2년, 남 6세) 남편이 동경 주재원으로 오면서 전문직 종사자였던 부인은 현재 전업주부. 아들은 사립보육원.

부정적인 상황’으로 해석하고, 자녀에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육아를 제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

2. 육아 이전의 경험으로 형성되는 교육관

육아를 하기 전까지의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바람직한 육아상’, 즉 교육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면접에서 “왜 어린 아이들에게 귀신 이야기나 무서운 이야기의 그림책 읽기를 해주는지 정말 이해 안 된다”⁷라는 발언은 부모 자신의 교육관이 일본 유치원의 교육교재에 대해 강한 저항감을 보여주는 상징적 예이다. 부모 자신의 유년시절과 비교하여 무서운 동화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치관에서 자신이 자라온 경험과 종교관이 ‘바람직한 육아상’ 형성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의 육아 이전의 경험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한국내 교육요구 needs에 대한 인식과 겹치는 특징을 보였지만 제3국에서 육아 이전의 생활 경험은 한국과 일본의 육아에 관련된 상황을 상대화시켰다. 다음 사례에서 반드시 한국의 교육요구를 기점으로 한 일본에서의 현실을 ‘바람직한 모습에서의 이탈’로 파악하지 않는 일면을 관찰할 수 있다.

“일본에 오기 전에 하와이에서 일년간 생활했는데, 부모의 교육경험이 자신의 아이에게 크게 영향을 준다고 봐요.”⁸

7 J씨(2007년 7월 28일, 일본체재 7년, 여 5세, 여 3세) 부부가 동경에서 자영업. 집사로 한국 교회를 다니고 있음. 두 자녀는 구립유치원.

8 E씨(2007년 7월 24일, 일본체재 5년, 여 5세) 하와이에서 일 년간 생활 후 동경주재원으로 오게 됨. 본인은 한국에서 했던 음악활동을 중단하고 현재 전업주부. 딸 사립유치원.

“저는 남편이랑 시드니에서 만났는데 저희 딸들의 영어교육에 관해서는 나중에 커서, 대학생 정도 되면 그런 경험을 시키고 싶어요”⁹

자녀에게 부여하고 싶은 교육내용을 제3국에서의 자신들의 생활경험을 토대로 형성하고, 동시에 ‘바람직한 육아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의 육아 이전의 경험에서는 ‘일본사회에 대한 태도’가 한국인 부모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육아상’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어디까지나 좋은 얼굴로 다테마에(본심과는 반대)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략)… 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하지 못해서 성격까지 이상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중략)… 우리애한테는 집에서 한국말만 사용하게 해요.”¹⁰

“아무리 일본어를 잘해도 결국은 외국인이라는 라벨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일본어·일본문화를 잘 아는 한국인,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라는 것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뭐 영어나 스페인어가 능숙하다거나”¹¹

위 사례에서는 일상생활상의 일본어에 문제가 없는 사람도 일본문화가 가지는 돌려 표현하는 방법과 정서차이에 의해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성격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일면을 보여주

9 G씨(2007년 7월 24일, 일본체재 10년, 여 8세, 여 3세) 남편과 시드니에서 만나 결혼 후 동경으로 유학. 현재 남편은 회사원, 본인은 전업주부. 첫째 딸은 유치원 졸업 후 일본 구립소학교, 둘째 딸은 보육원.

10 C씨(2007년 7월 24일, 일본체재 6년 7개월, 여 3세, 남 1세) 동경에 유학중인 남편과 결혼으로 일본 오게됨. 현재 남편은 자영업, 본인은 전업주부. 첫째 딸이 유치원.

11 L씨(2009년 3월 4일, 일본체재 12년, 여 4세) 유학생 부부로 동경정착. 남편 자영업. 본인은 박사과정 수료후 강사. 딸은 보육원.

고 있다. 또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디까지나 외국인”이라는 소외감은 자신을 주변인으로 정의내리고 사회와의 직접적인 교류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지는 측면도 엿볼 수 있었다.¹² 이러한 이문화 상황에서 육아를 둘러싼 부모의 문화변용은 자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언어순위와 정체성의 육성 등 부모의 교육관의 재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이문화 지역에서의 육아를 통해 형성되는 교육관

일본이라는 이문화 환경에서의 육아경험은 그 자체가 부모의 교육관 즉 바람직한 육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특히 부모는 아동을 처음으로 일본의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보냄으로써 다시금 명시적인 교육관의 차이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일본에서의 육아를 이해하고, 부모와 원(園)(보육원 또는 유치원)과의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은 예상될 수 있는 마찰(즉, 교육관의 차이로 인한 불쾌감이나 불안 등) 회피와 소외감의 완화를 위한 방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부모는 마찰회피를 위한 방책으로 통원할 원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같은 나라 출신자 혹은 외국계 아동이 많이 재적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의 교육 방침에 부모 자신이 공감할 수 있는지를 주요 관심요인으로 삼는다.

“이전의 사립보육원에서는 외국인이라고는 우리 아이밖에 없어서, …(중략)… 역시 신주쿠는 좋네요. 한 클래스에도 한국인 아이가 2,3명 정도 있고 여러 면에서 좋아요”¹³

12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이 잘 통하지 않을 때에도 주류사회에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실감하면, 이러한 소외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13 G씨(앞에 게재)

“전에 살던 곳은 흠시크에 걸리기 쉬워서 빨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는데…(중략)…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신주쿠로 옮길 결심을 했어요. 현재 신주쿠 사립보육원에 다니는데 한국아이도 있어서 정말 좋아라 하면서 다녀요.”¹⁴

위 사례에서 보듯이 부모는 통원할 곳을 선택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부모의 문화배경과 연관성이 있는 곳을 선택함으로써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일본어 능력의 향상이 원과의 의사소통의 기반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단지 언어문제뿐만 아니라 원의 행사에 참여할 때 문화적인 면을 포함한 의사소통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가 요구된다. 따라서 같은 나라 출신자가 있거나 같은 입장의 외국계 어린이나 부모가 있는 곳이라면, 아이가 직면하는 불안이나 불분명한 문제에 대처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외국계 어린이를 받아준 경험이 있는 원이라는 점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같은 외국인이라는 입장에서 육아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실질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일본문화와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데 이해가 있는 원을 선택하는 것이 마찰회피를 최소화하는 방책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다른 한편으로, 소외감의 완화를 위한 방책으로서 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모와 아이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문화라는 일본의 생활 속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은 부모에게 있어서 원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부모에게는 무엇보다도 아이가 어떤

14 A씨(앞에 게재)

15 단 면접에서, 면접자의 입장에서는 한일 문화의 차이에 기초한 문제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충돌회피를 위한 문화의 차이로서 포기해버린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을 받고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다. 특히 이문화에의 관용성을 촉진하는 활동은 아이의 자기긍정감과 부모의 만족에 연결된다(朝倉征夫, 1999: 392). 다음 사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모르는 상태에서...(중략)..., 담임 선생님이 일한日韓사전을 준비하셔서, 항상 저랑 이야기할 때 사전을 찾아가면서 대응해주신 것에 감동했어요. 특히 저에게 인형극 시간에 한국의 동요를 가르칠 기회를 주셔서 보육원 아이들과 같이 동요를 불렀어요. 이것을 계기로 우리 아이가 빠르게 다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되고, 한국인으로서의 프라이드가 높아지는 경험이었죠. 무엇보다도 그때 선생님께서 왜 우리 아이가 일본어를 잘 못하는지 반 아이들에게 설명해주시면서, 대신에 오늘 배운 한국동요처럼 한국말은 잘 한다고 설명해주신 것이 좋았어요. 그것을 계기로 우리 애가 보육원에 다니는 기분이 확 달라졌으니까요.”¹⁶

위 사례는 소수자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활동으로 이러한 이문화에 대한 관용성을 촉진하는 활동은 주류문화와 한국문화가 접촉하는 장場이 되고 있는 보육원·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에게 있어서도 문화의 승인이다. 즉, 한국문화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짐으로 인해 ‘한국인인 채로 좋다’라는 자신(자존감정)을 가지게 된다. 외국인 부모에게 있어 공공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문화를 인정받는 경험은 적극적인 자기긍정으로 연결되어 정신적 안정과 일본사회로의 참가를 강화시키는 귀속의식으로 이어진다. 이는 자녀의 교육관, 즉 ‘바람직한 육아상’의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¹⁷

16 E씨(앞에 게재)

17 이렇게 개인으로서 일본사회와 상대해가는 한편, ‘한류붐’이라는 일본 국내의 사회현상이 다른 원아의 엄마들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기도 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원에서의 이러한 활동은 일본 자녀에게 있어서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문화교육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朝倉征夫, 1999: 334-336).

이상으로 한국인 부모는 일본사회에서 육아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마찰회피와 소외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능하면 한국인과 외국인이 많이 집거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즉, 외국인의 정착과정에서 잘 나타나는 모자이크형 주거분리 현상이 동경거주 한국인 부모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III. 이문화 적응과정을 통한 부모의 문화변용과 교육관의 재정립

동경 거주 한국인 부모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육아상’은 다양한 요소가 상호관련되어 나타나는 양상이다. 그러나 실체로서의 ‘바람직한 육아상’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에서 단적으로 보여질 때가 많다. 면접 분석결과도 한국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과 한국적 정체성Identity의 육성이라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것은 상호 배타적인 틀이나 계층적인 개념이 아닌 한국인 부모의 바람직한 육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축으로 ‘이상적인 육아’를 공통된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번째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과 그 이유이다. 정도

D씨(2007년 7월 24일, 일본체재 11년, 여 8세, 남 2세, 유학생 남편과 결혼으로 동경이주)는 일본인 부모와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축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인의 자세에 관계없이, 사회의 흐름에 의해 육아환경이 변화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의 변화에 대한 개인의 한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 일본사회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견해를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켜가는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에서 생활하는 이상 일본어·일본문화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점이다. 그러나 학습의 이유는 일본 거주에 있어 절대적인 필요성을 중시하는 점과 일본에서의 체재를 시야를 넓히는 좋은 기회로 보는 두 가지 다른 관점으로 나뉘어진다. 어떤 이유로든 일본어·일본문화에 대한 학습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며 일본사회에서도 한국사회에서 중시하는 기능(대부분 영어)의 습득을 강하게 원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두 번째로, 한국적 정체성Identity의 육성으로 그 목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한국문화를 배우게 함으로써 한국적인 정체성Identity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관점이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문화적 연속성의 보장과 부모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계관을 자녀와 공유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었다. 여기서 이상적으로 삼는 세계관이 한국 국내를 향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 자신의 민족문화(한국문화로부터 독립한 개인적인 것)를 배우길 바라는 경우도 있었다. 즉, 자녀에게 바라는 한국인 상像이 부모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인 상像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자녀가 한국어·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은 스스로 한국어·한국문화 보유자로서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한국문화를 매개로 이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자녀의 문화적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 이면으로 일본사회에서 출산·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에게 국제모국어의 날¹⁸이 가지는 의미는 각별하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동할 때의 언어발달 단계와 언어와 문화의 정체성 문제를 내포하며, 사회 속에서는 환경으로서의 가정과

18 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 1999년 유네스코에서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 다언어의 사용 그리고 각각의 모국어 존중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한 날.

학교가 취할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면접 전반에 걸쳐 한국인 부모의 발언들은 한국어·일본어·영어가 미묘하게 섞인 언어(일종의 크레올^{creole})로 표현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것은 동경 거주 한국인 가족 간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문화 적응과정중에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세대간 동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자녀의 언어 교육관에 영향을 끼침은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주류문화로서의 일본문화’, ‘소수문화로서의 한국문화’라는 이항대립적인 틀로 끝나지 않고, 소속민족에의 의식이 다른 나라에 있는 동일민족이나 세계와의 연대로 연결되는 새로운 한국인 정체성의 제안으로 변화해가는 점도 주목된다. 이문화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출신국에 대해 더욱 강한의식을 보이는 현상이지만, 이것을 거주국 대 출신국이라는 국가의 틀뿐만 아니라, 소속 민족에의 의식으로서 국민의식과 민족의식의 엇갈림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¹⁹

외국인 부모에게 있어 다문화 육아공간은 갈등이 계속되는 부^負의 장^場으로서의 이미지가 많은 반면, 주류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사회참가를 하게 된다는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즉, 주류사회로부터 소외에 의한 고립감에 빠졌던 엄마가 일본어 문해능력을 획득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어차피 문화가 다르니까라고 자신을 설득시켰죠. 그런

19 이 국가관의 차이에는 증가하고 있는 한국으로부터의 이민, 북한·중국의 조선족 등의 존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데 정말 좋은 보육원 선생님을 만나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셨어요. 그 뒤론 육아가 정말 즐거워지고 저 자신도 밝아졌어요. 지금은 다른 한국 엄마들을 위해 통역을 하기도 하고, 우리 애랑 사이좋게 지내는 일본 엄마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중략)... 예전의 침울했던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같은 외국인 엄마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언제든 대환영이에요”²⁰

이 사례처럼 자신의 현재 상황을 학습을 통해 이해하고, 소극적^{negative}인 사고가 주체적으로 변혁해가는 ‘의식화’의 과정은 파울로 프레이리 Paulo Freire가 말하는 여성의 Empowerment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パウル・フレイレ, 1997). 이와 같이 주류사회에 긍정적인 문화적응을 보이는 부모는 자녀의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으로 다음 사례는 일본 주류사회와 한국인 사회 어느 쪽에도 귀속되지 못하고 자신을 일상에서 주변인으로 자리매김하는 주변인적 부정의식(李坪鉉, 2008: 178)을 형성하는 경우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느끼는 부모의 인식이 자녀교육에 있어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어지는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선생님과도 웬지 의사소통이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본인 부모들은 원 밖에서도 서로 만나며 교류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좀체 그 속에 끼일 수가 없고...(중략)...어차피 저는 외국인이라는 틀 안에 구별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국인끼리도 좀 서먹하고...(중략)...유치원 행사도 너무 많고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물을 때면 제가 모르는 게 대부분이고 그럴 땐 엄마는 한국에서 자라서 잘 몰라 하고 웃고 말아요.”²¹

20 K씨(2009년 3월 4일, 보육원 5세 남자아이, 2세 여자아이, 일본체제 12년)

21 I씨(2009년 3월 4일, 일본체제 3년, 여 5세) 남편은 IT관련 일본회사에 근무. 본인은 전업 주부. 딸 사립유치원.

이상으로 한국인 부모의 교육관의 양상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차이에 대한 표면적인 반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다. 하지만 교육관 자체는 부모 자신의 교육경험, 사회인식 등의 축척에 의한 갈등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의 차이를 기초로 한 구도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일상을 둘러싼 환경은 계속적으로 변화해나감에 그 환경에 대한 부모의 인식 또한 변화해가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바람직한 육아상’의 구도는 변화하는 것으로 부모의 교육관이 재정립되어가는 과정의 연환(連環) 속에 있다. 하지만 한일 간의 문화차이라는 기초적인 구도를 전제로 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부모의 교육관을 이해하는 데에 유효한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IV. 맺음말

본 논문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후 이문화 속에서 육아를 하는 부모가 어떠한 경험과 사고에 영향을 받으면서 교육관을 형성해 나가는지 그 양상 분석과 이문화 환경에서의 육아과정 중의 부모의 문화변용을 둘러싼 교육관의 재정립에 관하여 탐색형 집단면접을 통하여 고찰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 당사자인 한국인 부모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육아상’의 요인을 부모의 생활공간과 시계열적 경험면에서 분석했다. 면접 전반을 통해 한국인 부모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육아상’, 즉 교육관은 이문화 속에서의 현실적인 육아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언어·문화 문제를 비롯한 예절교육, 보육자와의 교육방침의 차이, 정체성의 유지 등 많은 부분에 걸쳐 교육방법에 관한 불안과 갈등을 겪는다. 따라서 부모는 불안

감 완화를 위해 여러 상황을 감안한 교육관을 재정립해나가며 자신의 이문화 적응을 통해 이루어진 문화변용 또한 동시에 반영하고 있었다.

면접을 통해 한국인 부모가 이문화 적응과정 중에 형성해나가는 교육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다음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교육요구needs의 인식, 육아를 시작하기 이전의 경험, 그리고 일본에서의 육아경험으로 각각에 현재의 육아와의 관계를 전제로 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한국 부모는 일본에서의 교육현실을 이해하는 틀로 한국사회의 과열된 지식중심의 조기교육에 대한 교육요구needs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일본에서의 현재 상황을 ‘바람직한 모습에서 이탈한 부정적인 상황’으로 규정짓는 경향을 보인다.

육아 이전의 경험 중 한국에서의 경험은 자신의 성장과정과 현재 한국 내의 교육요구에 대한 인식과 중복되는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제3국에서의 생활경험이 있는 사람은 일본에서의 현실을 상대화시키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바람직한 육아상을 형성해 나간다. 반면, 일본에서의 육아 이전의 경험에서는 ‘결국은 외국인’이라는 ‘소외감’의 경험이 자녀의 언어·문화교육에 대한 교육관의 재정립으로 연결되는 일면을 보였다.

결국 일본사회라는 이문화 속에서의 육아는 마찰의 회피와 소외감의 완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이 한국인 공동체로의 주거이동과 일본어 학습에의 동기부여로 연결되었다. 또한 다문화교육적인 대응을 하는 원園에 대해 많은 관심과 신뢰를 보이며, 외국인 부모자녀의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한국사회의 교육요구와 부모 자신의 다양한 경험들이 한국인 부모의 ‘바람직한 육아상’을 형성하고, ‘현실의 육아’와의 차이에 복잡하게 상회규정

의 관계를 표하며 이상적인 육아를 목표로 고군분투하며 문화변용해나가는 양상이 조사시점에서 조사대상자들의 공통적인 교육관이었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관은 현재의 육아 과정에서 재구축되며 새로운 사고를 포함한 ‘바람직한 육아상’으로서 또다시 부모에게 재현된다는 연관성을 가진다. 이번의 집단면접 자체도 부모간의 경험을 공유하여 객관화시키면서 재정의해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있었다. 추가조사^{follow-up}에서도 면접 시에 다른 부모와의 정보교환이나 면접 후 조사자의 분석을 보고받고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거나 육아 의욕을 환기시키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한 집단면접에서의 부모 간의 교류는 다시금 부모의 교육관에 영향을 미쳐서 자녀교육에의 참가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한국인 부모의 갈등과 자기의 재구축 과정 속에서 불안의 요소가 되는 이문화 지역에서의 교육을 긍정하려고 하는 모색 또한 찾아낼 수 있었던 점도 지적해두고자 한다. 이러한 이문화 속에서의 육아가 부모 자신의 성장과 학습이라는 양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연구과제로서 대응해나가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朝倉征夫(1999). 産業革新下の庶民教育, 酒井書店.
 李節子(2007). この人のこの一冊, 國際人流 240號, 入管協會 48.
 李坪鉉(2008). 多文化子育て空間から創出される協 の世界—養育者の文化變容を中心—, 『移民國家日本』と多文化共生論—多文化都市・新宿の深層, 川村千鶴子(編), 明石書店, 167-190.

- ヴォーンS.,シナグブJ.,シュームJ.S.(1999). **グループ・インタビューの技法**, 井下理
외(譯), 慶應大學出版會.
- 大場幸夫 외(1998). **外國人の子どもの保育—親たちの要望と保育者の對應の實態**,
萌文書林.
- 佐藤千(2004). 國際兒に對する保育者の捉えと日本人園兒の實態のずれ—A幼稚園
の3歳兒クラスの集團形成過程を通して, **學校教育學研究論集** 10號(10月),
東京學芸大學大學院連合學校教育學研究科/東京學芸大學大學院連合學校教
育學研究科編, 1-14.
- 佐藤郡衛, 吉谷武志 編(2005). **ひとを分けるものつなぐもの—異文化間教育からの
挑戦—**, ナカニシヤ出版
- パウロ・フレイレ(1997). **被抑壓者の教育學**, 亞紀書房.
- 日浦直美(2002). 多文化共生社會の保育(1)保育者が感じる子育て文化の違い, **聖和
大學論集**, A, 教育學系 30號, 11-24.
- ベネッセ教育研究開發センター(2006). **幼兒の生活アンケート報告書—東アジア5
都市調査 幼兒をもつ保護者を對象に, ベネッセコーポレーション**.
- 山田千明(2006). **多文化に生きる子どもたち—乳幼兒期からの異文化間教育**, 明石
書店, 92-97.
- 渡邊幸倫, 李坪鉉, 帆足哲哉(2007). 東京の多文化保育園・幼稚園における韓國人養
育者の教育觀—多文化社會での子育てがもつ教育者への影響を中心に—, 日
本國際教育學會 第18回大會, 台灣國立台北教育大學, 197-200.

자료

- 오광철. 2007. 사교육비 격차 7배...교육불평등 갈수록 고착. 경향신문. 5월10일
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5101830491&code=940401
- 이인철, 박민혁. 2006. 국민25% “교육이민, 기회되면 가겠다”. 동아일보. 3월31일
자.
www.donga.com/fbin/output?sfrm=4&n=200603310045
- 선우정 鮮于鉉. 2007. 【コラム】日本駐在韓國人家族が歸國を恐れるワ

조선일보(일본판). 7월 24일자.

www.chosunonline.com/article/20060724000048

外國人集住都市會議. 2007. 會員都市データ.

<http://homepage2.nifty.com/shujutoshi/>

新宿區地域調整課統計係. 2009. 3 新宿區の世帯數及び男女別人口の推移.

<http://www.city.shinjuku.tokyo.jp/division/260100chishin/toukei/toukeihyo/2008/08hyo02.pdf>

4 新宿區の外國人登録人口の推移.

<http://www.city.shinjuku.tokyo.jp/division/260100chishin/toukei/toukeihyo/2008/08hyo04.pdf>

電子政府の總合窓口(厚生勞省). 2009. 平成20年人口動態統計の年間推計. 夫妻の國籍別にみた都道府縣(18大都市再掲)別婚姻件數百分率(2008年版).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057779>

厚生勞省. 2007. 夫妻の國籍別にみた年次別婚姻件數百分率(2006年版).

www.mhlw.go.jp/toukei/data/010/2006/toukeihyou/0006067/t0134663/MG190000_001.html

厚生勞省. 2007. 父母の國籍別にみた年次別出生數及び百分率(2006年版).

www.mhlw.go.jp/toukei/saikin/hw/jinkou/suii04/marr2.html

法務省入國管理局. 2007. 平成20年末現在における外國人登録者統計について.

<http://www.moj.go.jp/PRESS/090710-1/090710-1.html>

Abstract

Educational Belief of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 : Acculturation Process of Korean Parents in Tokyo

Lee, Ho hyun

(Part-time lecturer, Wased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ducational belief of Korean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 in Tokyo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Through the interviews, it was ascertained that Korean parents was most concerned about methodological difference in education between “Korean ideal style of bringing-up”, and actual bringing-up process in Tokyo.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also acknowledged two important areas that constitute the educational belief of Korean parents in Tokyo, namely their own experiences concerning education before bringing-up their children and current living environment.

In the area of pre-bringing-up experiences, parents in Tokyo also sensitively recognized an early and knowledge-centered education which seems to be overheated among parents in Korea as the ideal one. This was referred to in relation to their own growing experience in Korea and information gathered from their family members and friends in Korea and from Internet. It was also observed that their

understandings of the gap between Korean and Japanese put them to believe that the Japanese circumstance is a negative deviation from the ideal “Korean ideal style of bringing-up”. However, it was also noted that the people who had lived in another country showed the view that the circumstance in Japan as a mere variation not a negative deviation.

On the other hand, the experience before bringing-up children in Tokyo, or notion of cultural and linguistic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Japanese, was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 sense of isolation”. The bringing-up experiences in Tokyo were narrated in the context of avoiding practical troubles and softening the sense of isolation. The strategies they narrated to cope with these potential problems include moving to Shinjuku ward, that has high concentration of foreign residences, and learning the Japanese language. Also they showed deep trust in the Nursery school which promotes redeeming self-respect through multi-cultural educ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ir educational beliefs were seemingly reconstructed through the present bringing-up process which resulting in creating a newer versions of ideal bringing-up for parents to fit their current life in Tokyo. In this sense, this focus group interview itself worked as a meaningful reconstructing experience since these parents were able to share and objectify their experiences with other parents in the process. In the follow-up interviews, the parents confessed that they could reinterpret their experience,

encourage themselves and exchange the information after looking at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It was obvious that this study had a certain effect on the change of educational belief that put them to engage even more in the children's education through exchanging their views with other parents.

This study also pointed out the fact that they wanted to think the "education in a different culture" positively, where Korean parents may have troubles and be nervous about the resetting process. These findings lead us to the necessity of a further study; that is to determine if or how this "different culture" gives these parents' personal growth and becomes an important learning process.

Key words: multi-cultural education, acculturation

〈부록: 설문지〉

- 동경 다문화 유치원·보육원에 있어서의 한국인 부모의 교육관

해당하는 □안에 해 주십시오.

성명		☐ 남 ()세 ☐ 여		메일주소 @	
남편(혹은 아내)의 국적		☐ 한국 ☐ 조선 ☐ 일본 ☐ 그 외 () ☐ 재일교포 (☐ 총련 ☐ 민단 ☐ 귀화)			
자녀의 성별 과 연령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넷째자녀	
	()세 ☐ 남 ☐ 여	()세 ☐ 남 ☐ 여	()세 ☐ 남 ☐ 여	()세 ☐ 남 ☐ 여	
가정에서 자녀와의 대화에 사용하는 언어		☐ 한국어 ☐ 일본어 ☐ 영어 ☐ 그 외 ()※복수답변 가능			

- 당신은 지금까지 모국이나 일본이외의 지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년 ☐아니오
- 당신은 일본에 오기전 모국에서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습니까?
☐예 ()년 ☐아니오
- 당신은 지금껏 일본이외의 지역에서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습니까?
☐예 ()년 ☐아니오
 (「예」의 경우)그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
- 당신은 지금까지 몇 년 정도 일본에 체재하고 계십니까?
 ()년 ()개월
- 당신은 현재 가사이외의 노동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
- 당신은 가까운 장래에 모국에 귀국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예」의 경우)몇 년 정도 후로 계획중이십니까? ()년 후
- 당신은 자녀를 일본에서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생각이십니까?
☐예 ☐아니오
 (「예」의 경우)어떤 초등학교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본소학교 (☐국립 ☐공립 ☐사립)
☐인터내셔널스쿨
☐민족학교
☐한국인학교
- 당신은 가까운 장래에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모국이나 일본 외 지역으로 출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단 해외 여행이나 단기어학연수 등은 제외입니다.
☐예 ☐아니오

(「예」의 경우) 어느 지역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 당신은 보육원 혹은 유치원으로부터의 연락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 ☐ 거의 대부분 이해한다 ☐ 대체적으로 이해한다
☐ 잘 이해되지 않는다 ☐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 당신은 보육사 또는 유치원 교사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 ☐ 거의 대부분 이해한다 ☐ 대체적으로 이해한다
☐ 잘 이해되지 않는다 ☐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 자녀가 다니는 원의 보육사 혹은 유치원 교사가 당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대화내용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거의 대부분 이해한다고 생각된다 ☐ 대체적으로 이해한다고 생각된다
☐ 잘 이해 못한다고 생각된다 ☐ 전혀 이해 못한다고 생각된다

○ 당신은 자녀육아에 있어서의 불안이나 고민을 누구와 나누니까?

(※복수 회답가능 하며 ()안에 우선순위의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근처의 일본인 친구 () ☐ 근처의 같은 나라 출신친구 ()
☐ 자녀친구의 부모 () ☐ 동거중인 조부모 ()
☐ 남편 또는 아내 () ☐ 모국의 조부모 ()
☐ 모국의 친구 () ☐ 누구와도 상담하지 않음 ()
☐ 그 외 () ()

○ 당신은 주로 어디에서 자녀육아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까?

(※복수 회답가능 하며 ()안에 우선순위의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근처의 일본인 친구 () ☐ 근처의 같은 나라 출신친구 ()
☐ 자녀친구의 부모 () ☐ 동거중인 조부모 ()
☐ 모국의 조부모 () ☐ 보육사 혹은 유치원교사 ()
☐ 정보지 () ☐ 인터넷 ()
☐ 그 외 () ()

○ 당신은 자녀가 다니는 원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 ☐ 거의 만족합니다. ☐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 별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 전혀 만족하지 못합니다.

○ 당신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 보육원 ☐ 유치원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과 배우자의 최종학력과 종교에 관해 알려주십시오.

(희망하지 않을 경우 기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최종학력	본인()	배우자()	종교	본인()	배우자()
------	-------	--------	----	-------	--------

이상으로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